

왜 지금, 다시 인생을 묻는가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할 기회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낸다.

바쁘게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삶의 방향을 묻게 된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품고 있다는 것은,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뜻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정보와 편리함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삶의 방향을 잃기 쉬운 시대이기도 하다.
기준은 흐려지고,
남과의 비교는 일상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속도보다 타인의 속도에 더 민감해졌다.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를 묻는 시간은 넘쳐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차분히 묻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생공방'을 운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준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서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향과 기준을 알면서도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해
원하는 삶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관찰하면서
좋은 인생이란 결국,
방향을 찾고,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인생공방에서 오랫동안 다루어 온 다섯 가지 실천 덕목,
‘마음 관리하기’, ‘자기자신 찾기’, ‘가족 행복하기’, ‘일 잘하기’,
그리고 ‘관계 잘 맺기’라는 흐름 속에서 나온 인생 질문들의 정리다.

이 책은 단지 성공하는 법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라고 권하는 책도 아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더 근본적인 질문을 건네고 싶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이 질문들은 오래전부터 회자되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우는 질문을 다룬다.
그다음에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 태도와 습관,
삶의 방향과 전략을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행복, 관계, 앞으로의 인생,
삶을 지켜주는 태도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이 정답을 주는 책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책이 여러분 각자에게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질문의 책,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각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인생은 길고, 또 짧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돌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다.

자기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가볍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묻고 싶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대청봉 아래 인생공방:설악에서

청원 엄 준 하